



캐나다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과 함께하는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서

이흥남

벨 국제학교는 6년 전에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고등학교 과정의 학교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근거하여 양육되고 있으며 성경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장이다. 벨 국제학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목표는 성적을 높이는 영특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하도록 학교를 그런 한마당 놀이터로 만들어 주는 것이다.

벨 국제 학교는 기독교학술교육동역회 창립 멤버였던 원동연 박사의 5차원 전면교육을 성경적인 5차원 전면교육으로 시도한 현장이다. 이 5차원 전면교육의 근본은 성경이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냐고 묻는다.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마음의 힘이며, “지혜를 다 해서 사랑하라.”는 지혜의 힘을 말한다. “몸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몸의 힘을 의미하며, “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자기 관리의 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인간관계의 힘을 의미하고 이 다섯 가지의 힘을 교육의 현장에 접목한다. 실제로 벨 국제학교에서 시험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오직 이 다섯 가지 힘을 골고루 접목시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다. 그래야 그들 안에 꿈도 비전도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17세에서 20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꿈을 꾸며 많은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살아야 할 시기이다. 그러나 지금 교육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몇몇 교육의 수장들은 아직 자기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의 인권만을 이야기 한다. 선생님들의 가벼운 체벌까지도 허용하지 않아 지금 교육의 현장은 가끔 혼란을 겪기도 한다. 교육이 무엇인가? 성경에서의 교육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없다면 그 교육은 실패한 것이다. 성적 제조기로는 만들었지만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했다면 후대에는 소망

이 없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이 진정한 교육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벨 국제 학교에서의 교육은 정말 공부해서 남 주기 위한 현장이다. 공부해서 남 주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공부해서 남을 줘야 시대에 소망이 있는 것이다. 언젠가 어느 한 대학교 신입생 면접 고사에서 “너는 벨 국제학교에서 3년 동안 무엇을 배웠는가?” 라는 면접위원의 질문에 그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1학년 때는 만주 벌판에서 기합 받으면서 자신을 찾는 법을 배웠고, 2학년 때는 캐나다에서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바른 세계관을 형성하여 이웃을 섬기는 법을 배웠으며, 3학년 때는 필리핀 쓰레기 더미에서 쓰레기 분리수거와 노동을 하며 세상을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주 동안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캐나다 세계관 대학원과 함께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 걷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물어본다.

첫째,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의 작품인가를 학생들에게 그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게 될 것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세상을 밝고 맑고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다. 세상이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로는 웃음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는 눈물도 있다. 아름다운 성공도 있지만 그 뒤에 쓰라린 실패도 찾아오는 땅이다. 그곳에서 이기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창조 질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한다. 그럴 때 세상의 거센 풍파를 묵묵히 이길 수 있다. 교회 내에서 들려지는 은혜의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 가운데 삶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한다.

둘째, 기독교학술동역회에서 설립한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약 14년 전에 트리니티 대학과 기독교세계관 대학원 설립을 논의하기 위하여 양승훈 박사와 함께 캐나다에 다녀왔다. 그 후 두 사람은 사

역의 길이 서로 달라 한동안 함께 하지 못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서로 분리가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가야 한다는 감동을 주셨다. 그 후에 벨 국제학교가 세워졌다.

세계를 바울과 함께 누볐던 의사 누가는 갈릴리를 호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베드로는 갈릴리를 바다라고 불렀다. 벨 국제학교는 우리 자녀들에게 세계를 보게 하고 느끼게 하여 갈릴리가 바다가 아니라 호수라고 부를 수 있는 비전을 가진 자를 만들고 싶은 현장이다.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는 교육. 세상의 교육을 되짚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살아있는 현장. 많이 본 자만이 많은 꿈을 그릴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따라 창조세계의 길을 따라 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들을 벨이라고 부른다.



이흥남 벨 본부교회(대신) 담임목사, 벨 국제학교장, 몽골국제대학 실행이사이다. 1955년 대전 출생으로 한영대학교 신학과 졸업하고 대신 대학원, 한남대학교 지역개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 신학 연구원 과정을 수료하였다. 1996년 성경적교육실천운동본부 창설, 2004 21세기 한국 교회를 이끌 100인 선정(국민일보)으로 선정되었다. 저서로는 『벨 5차원 성경적 교육』(예영) 『벨 5차원 성경 공부법』(예천사) 등이 있다.